

40



38



16

# 성도의 빛 8

1983

## 차 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클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데이  
조지 피 리

|                      |                     |    |
|----------------------|---------------------|----|
|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   | 1  |
| 예수님-완전한 지도자.....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7  |
| 질 의 응답 .....         |                     | 12 |
| 함께 나눔 .....          |                     | 14 |
| 좀더 좋은 아버가 됨.....     | 교회 복지 봉사과.....      | 16 |
| 인생 경험 이야기로           |                     |    |
| 정원희 형제애가 증진됨 .....   | 짐 액커맨.....          | 21 |
|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한        |                     |    |
| 중요한 열 단계 .....       | 조우 제이 크리스텐슨.....    | 23 |
| 성신 .....             | 폴린 베어드.....         | 30 |
| 마음의 변화.....          | 셜리 판즈 위스 벨린.....    | 35 |
|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 엘 톰 페리 장로.....      | 38 |
| 친구가 친구에게 .....       | 줄리안 메레디스.....       | 40 |
| 점 잇기 .....           | 비벌리 존스탄.....        | 43 |
| 이이직에게 의지함 .....      | 넨시 페델.....          | 44 |
| 나의 일지 .....          |                     | 47 |
| 해외 소식 .....          |                     | 48 |
| 지역 소식 .....          |                     | 50 |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별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구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6호, 제19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09KO PRINTED IN SEOUL, KOREA 8/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이 말씀은 태너 부대관장이 1982년 11월 별세하기  
직전에 준비한 마지막 대관장단 메시지이다.

그의 사망 이후 이 메시지가 출판될 때까지  
여러 달이 걸릴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두고 준비 중인  
다음 메시지를 출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출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그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태너 부대관장의 인격을 반영한  
생애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 시기에 출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교회 회원에게 권하라고 나에게 부탁하신 훌륭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본부를 떠나서 먼 곳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수 없는 동안에 내가 지명받은 일을 수행하러 나가기에 앞서 그의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 성도들에게 가시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각자 개인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새겨 주었으며 나는 전세계의 교회를 다니

면서 수없이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신뢰받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엄청난 책임입니까!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예언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신권의 권능을 갖고 있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대배도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강박해진 연유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암흑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는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 중에서 율법과 습관성 약품과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와 재정적인 무책임으로 곤경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의 본보기로 보고 그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체로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국가와 학교와 지역 사회를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지도층 인사들도 생활에서 부도덕, 부정적과 인격의 결함을 너무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진리와 종교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상한 이상과 정직의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회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기독교인답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한 실제로 복음 원리를 전도하고 가르침으로써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우호적인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없을까 두려워해서 그와 종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물론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심을 보였으며 그후 그 부부는 곧 우리와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함께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정말로 많은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쳤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얼마 전에 한 선교부를 관리하고 돌아왔으며 그들 자녀는 여러 분야에서 봉사했고 몇몇은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에 관한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책임을 게을리했다면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되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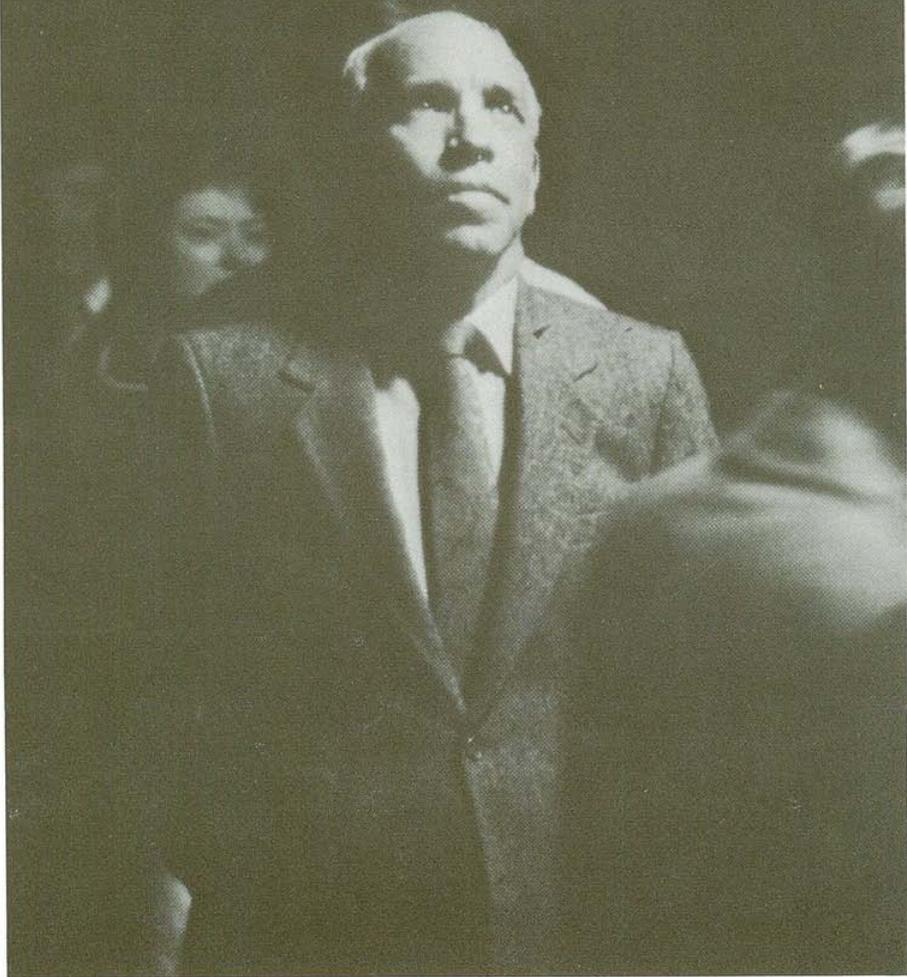
한번은 그가 나에게 것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복음 메시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었던 것에 대하여 나를 비난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좀더 명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서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몇몇 군인과 친분을 맺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스테이크 부장이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스테이크의 집행 서기로 일할 때 그가 근무하는 부대의 장군이 그를 불러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바란다고 말

우

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신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했는데, 그 직책은 장군이 가는 대로 그를 따라다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 직책이 자신의 교회 부름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므로 이 직책을 사양해야 되겠다고 장군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족과 교회 때문에 진급을 사양하겠다는 말인가?”

형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군은 “음, 그렇다면 그 일은 잊어버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며칠 뒤에 다시 전화해서 여전히 그가 보좌관으로 일해 주기를 원하며 형제가 교회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던 또 다른 군인은 프랑스에서 2년 반 동안 선교사로 봉사할 때보다 군대에서의 1년 동안에 더 많은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에 따라 행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의 메시지에는 이러한 주제가 들어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대관장단의 보좌로 처음 지지받았던 연차 대회에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생은 시험 기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의무는 본성의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식욕을 잘 조절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열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비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오

는 것입니다. 과학의 진보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의 새로운 발견은 진리의 대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생활해 왔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알고 있는 대로 못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면 비록 세상의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불행해질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3년 10월)

맥케이 대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는 1966년 10월 2일, 일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준비하신 다른 메시지는 그의 아들들이 대독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인용하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경륜의 시대에 나타났으며 복음 원리 즉 생명의 원리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간증합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절정의 때에 가르치신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의 뜻을 이루는 모든 원리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경전에서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이사야 35:8)라고 말한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원리와 의식에 순종한 다음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애를 베풀며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을 더욱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바로 이것이

하  
나님께서서는 하늘에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완전하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남녀 노소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신권을 소유한 회원들의 의무이며 보조 조직과 모든 회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며,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며 영생이 우리의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나 사랑을 느낄 것이며 옛날 사도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요한일서 3:14) (대회보고, 1966년 10월)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그의 보좌로 지지받은 연차 대회를 끝맺는 그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업

과 직장의 일과 영적인 관리 직분에 따른 임무를 행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귀중한 소유물이 될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일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의롭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가 충실하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은 성취와 기쁨과 발전으로 가득 찬 분주하고도 큰 목적이 있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생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참된 기쁨을 생각할 수 있다면, 현세의 투영도라 할 수 있는 다음 생에서, 즉 보람있는 모든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확대되고, 더욱 소망스러운 것이 있는 내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발전과 기쁨과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생이 끝나면 우리는 현세의 삶의 형태와 비슷한 상태, 그러나 제한된 것이 적고, 더 영광되고, 더 큰 기쁨을 주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연차 대회, 1974년 4월)

#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비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교회 회원인 것에 대하여,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친절하고 사려깊은 사람이 됩시다. 자신을 바치고 사랑을 보입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과 봉사의 모범이 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열매로 또한 우리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그의 교회 회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몇 가지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토론의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2. 회복과 또한 현대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계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신권의 권능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3.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본보기로 보이거나, 또는 실제로 복음 원리를 진도하고 가르침으로써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행해야 한다.

4.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은혜를 베풀며 이 세상에 살면서 이곳을 더욱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토론 지침

1.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말한다. 가족에게 그들의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 가운데 가족이 소리내어 읽거나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여러분이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미리 이야기하면 이 토론이 더 훌륭한 것이 될 것인가? 정원회 회장이나 감독이 가장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 모두

친절하고

사려깊은 사람이 됩시다.

자신을 바치고 사랑을 보입시다.

# 예수님 완전한 지도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지도력에 관해서 말하려면 어떤 기사나 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발휘하신 특성과 능력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든 뜻 깊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된 원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지구상에 계시는지 아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불확실하거나 약하지 않고 힘을 갖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확정된 원리나 진리에 의거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도 방법은 올바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은 자주 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구조나 견해를 변경시킵니다. 그로 인해 그를 따르는 친구와 그의 추종자들은 어떤 행로를 좇아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올바른 원리를 희생시켜 가며 권력을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들의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거의 무슨 일이든지 다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가 아니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일했습니다. 그는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와 너무 친밀해지므로 인해 실망할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도를 받는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참된 지도력으로 영향을 미쳐 그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덕을 혼자 간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과 가까이 하시어 그들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덕이 흘러나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 : 24-34 참조)

### 다른 사람들을 이해함

예수님은 귀담아 말을 들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사랑하셨으므로 당연한 태도로 잘 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의 권고에 귀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이 많고 간절히 권고하는 사랑이 많으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검을 집에 꽂으라.”(요한복음 18 : 1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하지 않고 조용히 그 종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 : 51 참조) 그는 베드로를 다정하지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을 공평 솔직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를 꾸짖으셨으며,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꾸지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권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잠언 15 : 31-32)

“생명의 경계”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지도자이며 또한 현명한 추종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왕국에서 매우 높은 위치의 책임을 맡도록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나쁘게 보셨으나 동시에 죄는 죄인의 충족되지 않은 깊은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심이 없이 죄를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 주라는 부름을 받을 때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와 결점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의 내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희생적인 지도력

구세주의 지도 능력은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뒤로 쳐져 놓고 마땅히 해야 할 부름받은 의무의 범위를 초월해서 지칠 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생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배려롭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지도자들에게 따르는 문제는 그것이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고 그들을 이용할 필요성에 따른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만 집착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물과 사람을 바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신의 말씀이 당시에 말씀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2천 년 뒤에 읽을 사람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후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사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 책임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발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의 사업을 함께 나누어 행하실 정도로 그들을 신임하시어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에 관한 그의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일은 올바르게 되지 모르지만, 추종자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에는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장은 인생의 수단인 동시에 인생의 큰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에도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없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고기잡는 계절이 지나고 나서나 고기를 잡은 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부름 용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또한 그들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마음껏 도와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인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성장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진리와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이 주어서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키우기에 충분한만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 책임성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 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확정된 원리가 없으면 책임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들의 품행과 실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좀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설정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색을 하고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함으로, 이 말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난처해 하지 않고 훌륭한 시간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상적인 지도력

우리가 인간의 지도자로서 가장 사랑

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단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이 지상 생활에서 또한 그의 지도력에서 소유하고 계시던 자질을 그들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은 단지 거의 모든 면에서 갈릴리의 인자의 자질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극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지도자의 모범을 보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위대한 이상으로 접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잠재 능력

갈릴리의 인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 중의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놀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에 관한 힘찬 진리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더 전진하도록 손짓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범에 의지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 홀

홀롭게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분에게서 성숙과 힘과 용기의  
모든 고상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는 우리 주위의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 한다면 그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행위를 개선시켜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차장, 사무실, 엘리베이터 및 기타 어느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할 수 없다면 전체 인류에 대한 형제애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류애가 탐탁치 못하거나 매우 작은 일면을 보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성은 항상 규모나 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인생 면에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신 비유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우리 주변의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간과해 버리실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훌륭하게 처신을 한 지도자들의 사례 연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한 그것도 자주 읽는

다면 모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이 지도력에 관한 여러 세기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참된 지도력의 행사에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경전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 완전한 지도자

홀롭게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분에게서 성숙과 힘과 용기의 모든 고상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경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미덕과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과 우주에 관하여 중심이 되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진리와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또한 봉사하면서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원리나 뛰어난 진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보게 되지 못한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

## 질 의 응 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

나는 가족과 함께  
교회의 국제 선교부에 속하는  
지역으로 곧 이사할 것입니다.  
국제 선교부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에드윈 큐 캐넌 이세  
국제 선교부 집행 서기

**국**제 선교부는 스테이크나 선교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선교부는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지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선교부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규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해줄 가르침과 격려의 편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만일 여러분이 이사하기 전에 국제 선교부와 연락을 취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찍 접촉하면 여러분이 이사 가는 나라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연락을 계속하고 여러분의 복지를 보살피기 위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회원 기록 카드를 국제 선교부로 발송되게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50 East North Temple, Twelfth Floor,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는 국제 선교부장인 칼로스 이 애시 장

로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부 및 지방부 조직.** 선교부장단은 지부 모임을 갖는 것과 지부를 조직할 권능을 부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이 사 간 지역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가족이 라면, 여러분이 정규 집회를 갖기를 권 고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 이거나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모임에서 성찬을 집행할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두 가정 이상이 거 주하며 또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편리 한 경우에는 지부를 조직하고 그 지부를 관리할 지부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둘 이상의 지부가 있으면 지방부 를 조직하여 그 지방부를 관리할 지방부 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회원의 수와 환경을 고려하여 정당할 경 우에는 여러분이 예배 장소를 구할 때 지 원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받고 계산함.** 국제 선교 부는 여러분의 헌금을 받을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헌금을 직접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로 보내십시 오. 사무실에서 헌금을 계산하고 여러분 에게 영수증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여 러분은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연말 결산 서를 받게 됩니다.

**신전 추천서 발급.** 가능하면 언제나 선교 부장단이 접견하고 신전 추천서를 발급 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 에 선교부장단의 일원과 접견할 약속을 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에는 여러분이 참석할 신전의 신전장과

접견하고 승인된 절차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약속하게 됩니다.

**자료를 얻는 것을 도움.** 여러분은 기본적 인 단위 조직 자료, 공과 교재, 신학 연 구원 중등부 가정 학습 자료, 교회 잡지, 성찬 컵 및 기타 가능한 한 많은 교회 프 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얻기 위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 및 신권 성임 권능을 부여함.** 국제 선교부장이 합당한 지원자에게 침례를 허가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신 권이나 새 직분이나 신권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선교부장단이 접견과 성임 이나 성별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웁니 다.

**총관리 역원의 방문을 계획함.** 가능하면 승인받은 대로 선교부장단의 일원이나 기타 총관리 역원이 국제 선교부의 지역 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이 사는 지역의 회원들이 국제 선교부의 여러분 지역을 방문하는 총관리 역원을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방부 대회나 복합 지부 대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제 선교부 지역에 사는 회원 으로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 우리 교회와 접촉하는 유일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소개하는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아버지가 나를 믿어 주심 모린 맥클로우

나는 나에게 닥칠 교회 부름에 관하여 생각하며 앉아 있는 동안 점점 더 그 일을 과연 내 능력으로 잘 해낼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공부와 수학은 항상 쉬웠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이 끝났을 때 나는 대수에서 “미”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나쁜 것은 대수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좌절감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찾아가서 슬픈 어조로 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 우리가 함께 이것을 풀 수 있는지 보자.”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대수를 공부하신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가 도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도와 주셨으며 그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학기 동안 계속해서 “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훌륭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는 “너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 이것을 풀어 낼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할 때라도 내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을 완전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심을 내가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추억은 나에게 평정을 되

찾아 주었으며, 지상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내가 큰 능력을 갖고 있어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늘 침착한 태도로 실패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

## 내가 복음대로 생활하면 할수록

캐롤 오스본 코울

나는 남편이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시기에 다음과 같은 성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나는 남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가졌으며 일년 치 식품을 비축했으며 그 이는 아이들과 내가 교회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성구를 언젠가는 남편이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간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나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인식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지금 이 성구는 내가 복음대로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 최선의 것을 기대함

리네트 모릴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15개월 된 아이와 새 아기를 데리고 어디든지 외출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란 여전히 나에게서 힘든 일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보고는 좀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 아기의 첫 진찰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기저귀 가방과 담요에 싣은 아기와 이제 겨우 혼자 걸기 시작하는 15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작은 차에서 빠져 나와 길을 건너

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을 건너려 하다가 나는 우리 자동차가 앞집의 진입로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집의 커어튼이 움직이니 더니 어떤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으나 나는 곧 시선을 돌려 버렸다. 나는 이렇게 합리화했다. "이건 너무해. 나는 오늘 아침 내내 이렇게 찢찢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집 진입로에 대체 누가 것처럼 가깝게 주차시켰는지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만 있으니 말이야."

나는 계속 칭얼대며 신경을 쓰이게 하는 아기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딸과 함께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칠대로 지친 채 한 시간 뒤에야 겨우 병원 문을 나섰다. 내가 막 길을 건너려 할 때, 약 70세 가량의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뛰어나왔다. 아침 내내 시달린 좌절감이 드디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할머니에게서 심한 말이 튀어나올 것을 생각하니 곧 눈물이 나오려고 화가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 할머니가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구, 가엾기도 하지. 당신을 내내 지켜 보고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차를 몰고 올 때 얼른 뛰어나와서 도와 주지 못한 내가 미웠어요. 차 타는 것을 도와 줄게요. 애기 엄마는 정말 양팔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군요."

나는 얼마나 성급하게 또한 그릇되게 그 할머니를 판단했는가를 깨닫고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자신의 행복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 할머니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는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그 할머니의 행동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면으로 기대해 보고자 한다. \*

---

나는 그때부터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그 할머니의 행동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면으로  
기대해 보고자 한다.

---

# 좀더 좋은 아버지가 됨

교회 복지 봉사과 제공

아버지의 영향력의 필요성

**만**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현명한 어머니와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말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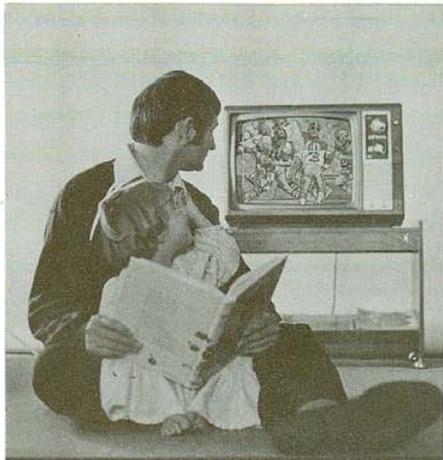
그러나 흔히 “부모의 사랑”하면 곧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조될 때가 너무 많다. 물론 가족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가 중요하지만, 의로운 아버지의 영향력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및 더 나아가서 장차 결혼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은 아버지와 자녀의 개인적인 관계 및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했다.” (나의 중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1980-81년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164페이지)

####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둬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3-5)

때로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벡타이를 개에게 주어 물어 뜯게 하는 다섯 살 난 자녀나 데이트하러 갔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와서는 “몇 시가 되었는지 몰랐어요.”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이십 대가 되어 가는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기 힘들 때도 있다.

자녀는 곧 축복인 동시에 큰 문제가 된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마태복음 18:10, 마가복음 9:37, 에베소서 6:4, 교성 68:25-28, 모사이야서 4:14 참조) 모든 중요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큰 우선 순위를 그



들에게 두어야 한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으며,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녀가 진지하게 질문할 때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항상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그들의 방식에 따라 또한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믿고 사소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는 우리를 신뢰하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말씀, 1970년 1월 31일, 케이 에스 엘 방송.)

#### 시간에 관하여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대회 보

고, 1973년 10월) 모든 연령층과 환경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들 대답의 핵심은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는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그 시간의 총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만 3개월 된 아기에 관한 조사에서 아버지들은 그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에 38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녀가 항상 무시당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스스로를 가치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 주어 그들의 자신과 인생과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느낌이 들게 해줄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

### 시간에 관한 공통된 문제점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기쁘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스펜서 더블류킴블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페이지)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 다음 사례와 비슷한 것을 들 수 있다.

### 시간의 부족

아버지는 전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며 계속해

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다. 자녀와 나누는 몇 마디 대화조차도 주로 “제발 좀 귀찮게 굴지 마. 나는 바빠.”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 다른 문제에 집착해 있음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 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녀가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서 이야기 책을 읽어 주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려고 애쓴다. 자녀가 들고 온 학교 숙제를 도와 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장난 기구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다. 그런 것은 실제로는 같이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딴 곳에 있다는 셈이다.

### 좌절감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 주면서도 큰 부담을 느낀다. 자녀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어울릴 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할 시간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아버지가 된 것에 저항감마저 들게 된다.

아버지들은 거의 누구나 너무 바쁘거나 다른 사물에 집착하거나 좌절감을 느껴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이런 문제가 자주 그리고 자녀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발생할 때 위험이 따르게 된다.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냄

“자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시간

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를 피하는가? 자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선 순위를 바로잡을 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 관심을 보임

자녀가 있을 때 특히 그와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관심을 보인다.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자녀를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의 느낌을 주의해서 듣고 부모가 이야기한 것에 관한 자녀의 의견을 묻고 짜증내지 않고 진정된 흥미를 보여 준다는 뜻이다. 얼굴 표정과 음성도 말 못지 않게 많은 의사를 전달한다. 부모는 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부모의 경험을 함께 나눔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고 귀기울여 들을 때 함께 경험을 나누게 된다. 아이디어와 경험한 것과 관심사와 흥미와 장래의 희망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누게 된다. 어린 자녀에게는 비행기를 탔던 이야기를 해준다. 큰 자녀에게는 최근에 읽은 좋은 책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 안될 개인적 및 은밀한 경험도 있으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좀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

### 자녀와 함께 일함

자녀는 가족 활동과 전통적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단 두 사람만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계획하지 않은 활동(산보, 정원 가꾸기, 함께 장보러 가기 등) 뿐만 아니라 계획된

활동(캠핑, 나무 집 짓기,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감)에 참여하는 것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함께 행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활동 자체는 이차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곁에서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들 뿐만 아니라 딸과도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꿈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음을 굳게 다져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시간과 날과 달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다짐한 결의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페이지)

아버지는 자녀에 관하여 “나중에”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흔히 있다. “나중에 도와 줄게, 지금은 바빠.” 또는 “지금은 귀찮게 굴지 마. 나중에 보자.” 아버지로써의 목표는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녀에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당장 그런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서 시간을 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자녀는 성장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질 만큼 성장하는 일은 없다.

다음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검토하고 비록 일주일에 15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을 잡자기 전에 함께 하더라도 자녀 개인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함께 하는 시간을 목표로 만든다. 우선 아버지가 변경시킬 수 없는 약속 시간을 모두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녀들에게도 모

두 똑같이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 또는 몇 분에서 시간 계획을 짠다.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 자신임을 기억한다.

“거룩한 경전을 다 찾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실족시킨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가 그의 백성과 이웃과 친구 또는 친지에게 진실되지 않았던 성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충실하셨습니까? 그는 진실되었습니까?

가? 그가 주시지 않은 선하고 가치있는 것을 여러분은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자기 가족을 즉 아내와 자녀를 그런 방법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내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의 사랑에 넘친 모범적인 지도력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요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모범적인 남자”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 행하신 연설, 미출판. 1978년 9월 12일)

## 시 간 표

| 시간     | 요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오전 6시  |    |   |   |   |   |   |   |   |
| 오전 7시  |    |   |   |   |   |   |   |   |
| 오전 8시  |    |   |   |   |   |   |   |   |
| 오전 9시  |    |   |   |   |   |   |   |   |
| 오전 10시 |    |   |   |   |   |   |   |   |
| 오전 11시 |    |   |   |   |   |   |   |   |
| 정오 12시 |    |   |   |   |   |   |   |   |
| 오후 1시  |    |   |   |   |   |   |   |   |
| 오후 2시  |    |   |   |   |   |   |   |   |
| 오후 3시  |    |   |   |   |   |   |   |   |
| 오후 4시  |    |   |   |   |   |   |   |   |
| 오후 5시  |    |   |   |   |   |   |   |   |
| 오후 6시  |    |   |   |   |   |   |   |   |
| 오후 7시  |    |   |   |   |   |   |   |   |
| 오후 8시  |    |   |   |   |   |   |   |   |
| 오후 9시  |    |   |   |   |   |   |   |   |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함께 행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곁에...있다는 것이다.

# 인생 경험 이야기로 정원회 형제애가 증진됨

짐 액커맨

**피**터슨 형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원회 회원들은 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여덟 형제와 병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병든 기간 동안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느낀 좌절감, 그로 인한 열등 의식으로 복음 원리를 거역하게 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는 현재 자기 아내가 된 옛날의 어떤 처녀에 관하여 또한 그녀가 어떻게 그에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도록 설득시켰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출발할 때의 송별회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그에 대하여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블룸필드 형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블룸필드 형제님, 제가 말씀할 시간이 두 시간도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는 몇 가지 적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셉 스미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결

론을 맺을 수 있겠지’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평생 한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인지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일주일도 못되어 선교 사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 모두가 각자 정원회 시간을 이용하여 정원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하는 아이디어는 감독님이 제안한 것이었다. 그는 와드의 모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및 그룹의 지도자에게 이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정원회 회원 사이의 형제애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와드 회원이 개인 역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모임을 제안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인 카워드 형제는 감독의 권고에 따라 인생 경험 이야기를 월례 특별 정원회 모임에 넣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정규 공과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힘든 과제에서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주고 정원회 사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신권회에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 방식은 모임을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첫 부분은 가정 복음 교육, 제보 사업,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분야에 관한 훈계 또한 칠십인 정원회의 경우에는 선교 사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등과 같은 정원회 사업을 의논하는데 보냈다. 그러나 약 20분 동안 진행되는 이 모임의 두번째 부분에 회원들의 기대가 커지게 되었다. 이 시간은 완전히 정원회 회원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간증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카워드 회장은 이 방법의 성공 여부는 정원회 회원 개개인에게 인생 이야기를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데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어서서 단지 자기 고향이 어디며 가족이 몇 사람인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므로, 뜻 깊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선 이것에 관하여 좀 거북하게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뜻 깊고 유익한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과 또한 뽐내는 것 같이 보이고 싶지 않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런 갈등을 이겨낸 결과 항상 겸손하고 훌륭한 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배경에 관한 가벼운 일화와 간증을 쌓는 경험과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교훈에 관한 것이 거의 완전하게 잘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게 되었다.

최근에 심각한 재정적 고난에서 벗어난 형제는 십일조의 율법에 순종한 행위와 최근에 그의 생활에서 일어난 몇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

또 어떤 형제는 훌륭한 개종 이야기를 하고, 그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독일로부터 유타주로 갈 때까지의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어떤 형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성장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의 형들이 보여 준 훌륭한 모범에 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

정원회 회원이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모두 그 모임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매달 다른 형제가 정원회 회원 앞에 서서 현재의 그를 만들어 준 경험과 배경을 이야기할 때, 회원들은 감사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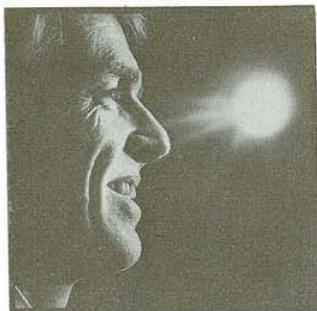
피터슨 형제는 선교사로서 특별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끝내고 있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한 달에 열 명을 침례주었다.

“그 일로 우리 선교부의 다른 선교사들이 나를 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자신감이 선교 사업을 하는 나머지 기간과 또한 귀환한 뒤 12년 동안 내내 나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 간증으로 말을 끝맺었다. 모임이 끝난 후 피터슨 형제와 정원회 회원들이 다시 굳게 악수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 주었다.

정원회에서는 누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과 감사…… 또한 영속적인 형제애가 흐르고 있다. \*

# 더 큰 영성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열 단계



조우 제이 크리스텐슨

**열**마 전에 한 젊은 선교사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나의 아내의 사무실에 특별한 개인적인 부탁을 하러 왔다. 그는 우리가 그의 부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인 크리스텐슨 자매가 그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지 알아봐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는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우리는 여섯 살 된 여동생을 포함하여 모두 어머니를 위해 금식했으며 어머니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술에 대하여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진답니다. 언제 수술이 시작되는지 알면 금식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

겠는데요.”

아내는 기꺼이 그의 부친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 장로에게 아버지와 직접 통화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직접 통화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친은 전화를 받고 그 전화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아드님이 금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수술 받기 전에 금식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아들이 실망하겠군요.

# 가 장 훌륭한 개인적인 계시 중에는 개인적인 경전 연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애의 어머니는 이미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은 다섯 시간 동안 계속 되었으며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알아들은 그 장로는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주시고 깊은 애정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어머니와 모든 가족에게 제 큰 사랑과 안부를 전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를 마치고 수술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자 이 훌륭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감사하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 아내 바바라는 그녀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악수했으며 그는 내 사무실에서 나가고 나는 앉아서 울었다!”

지난 19년 동안 어떠한 일련의 가르침과 사건과 환경이 어울려 이렇게 상냥한 마음씨와 헌신과 겸손과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아들이 되게 되었는가를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금식에는 단지 굶

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이런 영적인 자질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결합되어 매우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는 이미 매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가정에서 그 정도로 명성을 쌓았던 것이다.

아내와 나는 현재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대단히 영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부터 많은 시련을 안고 있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고 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높은 수준의 간증과 영성을 쌓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그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영성을 갖출 때 성공하며, 그렇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완전히 순수한 소망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기꺼이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성령이 속삭이는 것

# 우

리가 일상 생활에서 정규적으로  
좀더 영감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라는 권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을 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진실로 영적으로 된다 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상황하에서나 우리 생활에 참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된다.

얼마 전에 나는 한 젊은 선교사에게 그의 부친이 그날 아침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어려운 책임을 맡았다. 그는 충격을 받고, 턱을 덜덜 떨었으며 눈에선 눈물을 흘렸다. 그런 다음 나는 개인적인 간증과 영성을 쌓은 데서 오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말없는 결의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으나 선교 지역을 떠나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자신이 그의 부친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선교 지역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했다. 그가 보여 준 평온하고 용감한 태도는 내가 전에 본 일이 없는 태도였다. 그는 어떤 아버지라도 그런 아들들을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의 강하고 헌신적이며 훌륭하게 준비된 젊은이의 모범이었다.

다행히 그는 그의 인생 여정에서 이 복음이 참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문자 그대로 부활이 있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었다. 그 모든 진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다.

영성과 간증이 한 개인의 경험의 일부가 될 때, 그 사람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기 수양이 되고, 자신있고, 행복하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평온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우리 선교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영성과 개인적인 계시가 없다면,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공적으로 기적적인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성령의 속삭임이 없다면, 선교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자기 돈을 써 가며 가정과 때로는 애인이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기를 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복음의 진실됨에 대한 이 간증과 개인적인 확신이 “반석”이 되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처럼 굳건히 서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힘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기뻐하라,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다.

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시에 따라 생활하면, 그는 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 주고, 그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영적인 면에서나 세상적인 면에서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주님의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32페이지)

몇 년 전에 나는 영성을 키우고 그리하여 성신의 은사와 함께 오는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든 열 가지 질문 점검표를 적고 그 다음에는 매달 내가 각 항목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물론, 나는 아직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많지만 이전에 이런 실질적인 제언을 적용하기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여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1.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가? 우리는 다만 이따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것

이 아니라, 열심히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니파이이서 32:3)는 명을 받았다.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해지며,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경전에 몰두하면 우리 사이의 거리가 단축되고 영성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손자와 시온의 모든 젊은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1966년 7월 11일, 브리감 영 대학교,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및 중등부 임원에게 행한 연설, 6페이지)

가장 훌륭한 개인적인 계시 중에는 개인적인 경전 연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76편에 있는 여러 단계의 영광에 관한 시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요한복음 5장의 번역을 연구한 다음에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임한 것이었다. (교성 76편 : 머리말, 15-24)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그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여러 번” 생각한 다음에 왔다. (요셉 스미스 이서 11-17절) 또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은 그가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와 4장 6절에 관련된 질문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받은 것이다. (값진 진주 부록,

**게** 으뜸과 영성은 병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성령이 좀더 정규적으로 자신에게 임하시기  
원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낫질해야 한다.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의 시현 1-11)

2. 나는 단지 기도문을 읊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는가? 나는 때  
때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단지  
기도문을 읊을 뿐이고 진심으로 기도드  
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거의 생각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말로 가득 찬 기도를 읊을 수 있으나 생  
각하지 않고서는 가슴 속 깊이 느끼는 것  
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다. 진지한 기도는 나를 성령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준다.

3. 나는 의미있는 금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단지 굶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는  
가? 나는 잘 준비하여 목적을 가지고 합  
당한 태도로 금식하는 금식일에는 언제  
나 내가 영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의 원리가 된다.

4.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가? 우  
리가 일상 생활에서 정규적으로 좀더 영  
감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  
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 있  
게 하라.”(교성 88 : 124)

이 성구의 훈계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  
관장이 당시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었던 해롤드 비 리 장로로부터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새로 부름받을 때 받은 권

고와 비슷한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  
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할 것이며 그 조용한 아침 시간  
에 하루 동안의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은 통찰과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나는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기뻐하라.  
“기운을 내라.”(마태복음 9 : 2; 14 : 27;  
요한복음 16 : 33; 사도행전 23 : 11; 니파  
이삼서 1 : 13; 교성 61 : 36) 또한 “기운  
을 내어 기뻐하라.”(교성 25 : 13)고 말  
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찾아 내어 바로잡아야 한  
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때 만큼 성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축복에 대  
한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행복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일보가 될 수  
있다.

6. 나는 열심히 일하는가? 게으름과  
영성은 병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성  
령이 좀더 정규적으로 자신에게 임하시  
기 원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낫질하라.”(교성 31 : 5) 또한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교  
성 4 : 2) 일하라는 훈계를 따라야 한다.

나는 성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생각  
할 때마다 곧 스펀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 영

성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간증을……특히 비회원에게 간증을 전하는 것이다.



님이 떠오르게 된다. 그가 일에 임하는 놀라운 능력은 신화에 가까운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느낌이 오기보다는 행동한 다음에 더 자주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맞는 것이다.

7. 나는 어떤 직책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봉사하는가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의 자만심이라는 “보편적인 죄악”은 우리가 겸손하게 봉사하지 않고 직위와 직책(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영성을 빼앗아 가게 된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식탁에서 일어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직책에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겸손하게 봉사하려는 마음에 관한 심오한 본보기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직책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성이 빠져 나가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떤 부름이든지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부름을 행한다면,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쏟는 재능보다

더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사려깊고 겸손한 봉사가 곧 기독교 정신의 특성인 것이다.

8. 나는 모든 사람을……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 34-35) 이 두 구절에는 몇 마디 말씀밖에 없다. 이 구절은 경전 안의 어느 성구와 마찬가지로 읽기는 쉽지만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태복음 5 : 44) 명하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성령이 더욱 풍부하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분쟁과 다툼과 불화의 분위기에서는 영성이 증진될 수 없다.

9. 나는 이상적으로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실생활의 행위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 우

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성령이 좀더 풍부하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영성을 빼앗기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될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11, 21-22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어 지극히 잘 지내실 뿐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며, 그 두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5:48; 니파이삼서 27:27) 우리는 그에 도달하기 위하여 속죄(하나 됨)를 적용해야 하며 회개에 이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하여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마음의 평화와 영성이 증진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온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중심이 되는 메시지이다.

10. 나는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간증을.....특히 비회원에게 간증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세주와 복음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 성신이 그 메시지의 진실됨을 확인해 준다. 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간증을 전하는 우리도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된다. 간증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간증은 그 강렬함이 증진되지 않으면, 감소되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고무된다.

나는 이 열 가지 질문을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고 있다. 이 질문은 나의 영성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또한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특권에 합당한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몇 가지 단계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여 각자 생활을 풍요롭게 하도록 하자. 영성은 참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활의 열쇠가 된다.

\*

# 성신

외인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변치 않는 동반자인가



클린 베어드

나는 감독의 사무실에 앉아서 신권을 통하여 힘과 축복을 받는 특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와드에서 월계반 고문으로 성별받고 있었다. 그때 주어진 말씀 중에서 대부분은 잊었지만 한 가지 말씀이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 나를 성별하신 감독단 보좌는 나에게 늘 성신이 함께 하시도록 일하라고 권고해주었다. 그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그의 지혜로운 권고의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

았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을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으며, 나의 생활에서 그 영의 영향력을 받고자 여러 번 노력했다. 그러나 쉽게 실망을 느끼게 되었으며, 나는 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항상 생각했다. 낙담이 된 나는 성신의 동반은 총관리 역원과 그의 가족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나의 실패를 무마시키곤 했다. 나는 내가 “선한” 생활을 하는 한 언젠가는 먼 장래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어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스스로를 속이기 가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감독실에서 그날은 아무런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중으로부터 성신의 인도를 받으라는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수 년 전 내가 침례받을 때 나에게 행하라고 권고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침례받은 후 확인받을 때, 주님의 종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이 세상의 어떤 이 유로 합리화 하더라도 이 권고와 계명을 지워 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성신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1896년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 말씀했다.

“나는 늘 이야기해 왔고 또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의 성도는 누구나 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녀야 하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혜사(성신, 성령)를 받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진리와 계시의 영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데저렛 위클리, 1896년 11월 7일, 641-643 페이지)

성신의 은사는 남자나 또는 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총관리 역원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은사로 스스로 지도와 영감과 위안과 지혜와 힘과 간증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어떤 사람도 성신을 받지 않고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정사 6:58)

성신의 계시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개인적인 진보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팔리 프 프랫 장로는 이런 글을 썼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든 예지의 존재는 하나님이 몸소 소유하고 계시 모든 기관과 속성, 동정심과 애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씨논의 상태로 있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성신의 은사는 그 모든 기관과 속성에 스스로 적용한다. 이것은 모든 지적인 기능을 예리하게 하며, 모든 자연적인 열정과 애정을 키우고 순화시켜 준다. 그리고 지혜의 은사로 그런 것이 합당하게 사용되게 한다…… 그것은 미덕과 친절과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사랑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이것은 외적인 미 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도 키워준다. 그것은 건강과 활력과 활기와 친교의 느낌을 불어넣어 준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지적인 인간의 모든 기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것은 신경을 강화시켜 주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뼈에 골수를, 가슴에 기쁨을, 눈에 빛을, 귀에 음악을, 전신에 생명을 갖게 한다.”(신학 입문, 제10편, 데저렛 출판사, 1965년, 100-101페이지)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고 더욱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한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너무 절망적이며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해지고자 할 때 우리를 강화시켜 주고 인도해 주는 은사를 찾는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성신이 도움이 된 한 가지 방법은, 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경전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내가 개선해야 할 특정한 부분에 관련되는 성구가 특별히 눈에 띄게 된다. 그 성구를 읽으면서, 나는 더 잘해야 겠다고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성신은 우리가 이런 지식에 주의를 돌리게 해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를 줄 수 있다.

## 자녀 양육

부모가 가족을 키워 나갈 때, 매일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중에 어떤 결정은 우리 자녀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히 우리의 관심을 더 끌게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권고 하셨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부모는 성신의 인도를 통하여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하여 성

신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순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세 살 된 아이가 신발 끈을 매는 법을 배울 때의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이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도 바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영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흔히 있으나 우리가 그에 따라 한다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22-23) 우리는 자기 가정과 가족에게 어떤 면에서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교회 부름

우리가 초등협회 회장이든, 가정 복음 교사이든, 총관리 역원이든, 우리는 교회 부름에 있어서 또한 그것에 관하여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를 열심히 구하며 자신의 부름에 있어서 그 계시의 인도를 받아 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나는 여러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동안 영감으로 인식한 아이디어를 받은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어떤 것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왔으며, 어떤 것은 갑작스럽게 왔다. 그러나 때로는 그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때, 이 권고를 인식하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순화시키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교회 부름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 그의 동반하심을 받는 방법

경전을 상고한 뒤에는 성신의 동반하심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복음 표준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된다. 이는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 (히라면서 4:24) 하시기 때문이다. 해롤드 비리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면에서 성공의 열쇠는 인간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관점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려 하는 겸손한 정신과 또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46년 10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함은 우리에게 성신을 열심히 찾으라는 니파이의 권고를 상기시켜 준다. (니파이일서 10:17 참조) 우리는 성신을 원해야 하며 그 소망을 진지한 기도와 사색을 통하여 나타내야 한다. “네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성신을 받으리니” (교성 14:8)

우리가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이런 일을 다 행했다 해도 경전은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여야 하며, 이 “작고 고요한 음성”은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느낌으로써 오게 될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며”(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페이지)

나는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우리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남편은 정원회 회장이 여름 휴가를 떠난 동안 장로 정원회 그룹 지도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장로 정원회 회장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이 이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책을 맡는 것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세 자녀를 가진 우리에게 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것에 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 동안 만일 주님이 남편을 이 직책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직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징표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이 떠올랐다. 우리가 현명하게 잘 계획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스테이크 부장이 남편에게 부름을 주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지지받았을 때 나는 내가 받은 속삭임이 성취된 것을 알았다. 남편도 역시 부름을 받기 전에 성신으로부터 이 직책은 이 때에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실천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는 큰 문제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작은 문제에서도 성령에 귀기울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작은 일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은 계율에 계율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다.

남편은 어느 날 밤 사업상 차를 몰고 시외로 나갈 일이 있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저녁 7시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8시가 되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으며 10시쯤 되자 점점 더 안절부절하게 되었다. 나는 잠을 청해 보려고 애썼으나,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성신의 위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걱정으로 몸살이 날 지경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만일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면, 성신이 위안을 주시고 화평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두 번 정도 몇 분 동안 평온한 느낌이 들었으나, 그런 종류의 영적인 속삭임에 귀기울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논리적으로 만일 아무 일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든 나에게 전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화평한 느낌을 무시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남편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그가 무사한 것을 알았다. 사려깊은 남편이 단지 전화할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었다. 만일 내가 성령의 속삭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날 밤 고통을 얼마나 덜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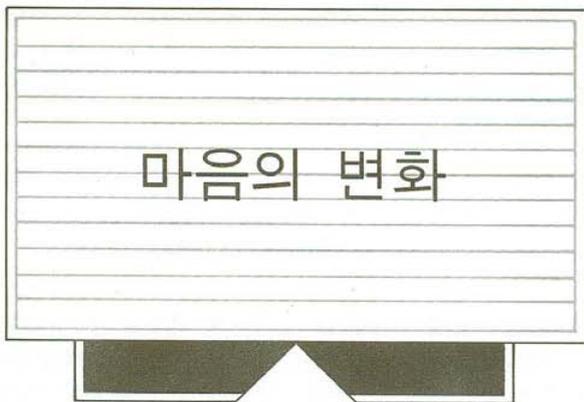
우리가 일단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인식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일단 주님의 뜻을

알면 게으름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순종하기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때로 이 속삭임에 따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며, 미루지 않고 행하기 위하여 근면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자매를 어떤 활동에 참여시키거나 어떤 형제를 방문하여 그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게 되면 그 속삭임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시간이 다시 안 올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질서있는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려깊게 연구하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인간이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교성 121:46)로 삼을 수 있는 상태의 특성과 영적인 진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과 성신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를 찾게 되는가? 외인인가, 손님인가,…… 또는 우리의 변치 않는 동반자인가? \*



셜리 판즈워스 벨린

우리는 조금씩 초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홀 부인은 가장 훌륭한 구도자였다. 그녀는 회원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다른 선교사들이 맨 처음 그녀와 만났으며, 그녀는 정규 공과를 배우고 물문경을 읽으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간증으로 자라났다. 동반자와 나는 그녀에게 복음 공부를 계속하도록 권고했다.

그렇지름 그녀의 동생인 조운 맥아더가 방문하러 왔다. 홀 부인의 남편과 양가 친척은 모두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홀 부인은 남편이 (그는 적어도 선교사에게도 우호적이었다.) 함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침례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이 자신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기도 전에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을 특히 부모님을 괴롭혀 드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홀 부인의 동생은 그녀를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고 물문과의 친분을 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집에서 동생을 보낸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운은 아직 만 20세밖에 안되었으며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이었다. 우리가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의 빅토리아로 여행하면서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홀 부인은 침착해 보였다. 그녀는 며칠 뒤에 조운이 안정을 되찾은 후 우리를 조출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홀 부인이 우리를 문에서 맞이해서 거실로 인도하자 조운은 내심 놀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그는 “선교사”들을 중년의 남자나 광신자로 생각한 듯하다. 우리는 쾌활하면서도 진지하게, 반대로 조운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두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놓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필름스טר립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의문이 많았으며 우리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약속 시간에 조운은 물문에 대한 질문과 그릇된 소문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왔다. 그녀는 물문에 관하여 들었던 모든 내용과 주장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화난 어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터놓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확실치 않은 결의를 피력했으며, 그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우리의 대답에 그녀는 만족하는 듯했다. 그녀는 성경을 잘 읽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성구를 인용했다. 그녀는 우리가 인용하는 성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는 모두 함께 그것을 찾아보고 토론했다. 그날로부터 나는 그녀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 감명을 받았다. 대화가 끝났을 때, 우리는 좀더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자매”로 불리는지 설명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18개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만든 확신에 대하여 말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여행한 벅찬 감정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공과는 배도에 관한 것이었다. 조운은 맹렬하게 그 공과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거기에서 나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우 화를 냈으며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나중에 그녀는 이런 편지를 썼다. “그날 밤 자매님이 떠나신 후 저는 요셉 스미스의 소책자에서 다른 교회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한 말씀 때문에 몹시 울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평생 동안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었으며 그 말은 곧 나의 모든 인생을 뒤엎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요셉 스미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언니(홀 부인)는 계속해서 복음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없었으면 복음 공부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으로서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나는 공부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분개했으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지만 주님은 나에게 친절하시고 인내심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자매님들이 가르친 것을 모두 그대로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심으로 고민한 후에, 우리를 다시 불렀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녀를 좀더 가르치려 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다음 토론인 복음 회복에 관하여 가르칠 때,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갈증이 가시지 않은 듯이 충분히 대답할 사이도 없이, 열심히 질문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것이 사랑의 행위였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진리를 헐뜯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빠진 부분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상에 온전하게 존재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공과에서도 똑같은 영이 감동았다. 주제는 구원의 계획이었다. 나는 동반자와 나 두 사람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말이 막히지 않고 흘



러나왔다. 아무 어려움없이 성구를 찾았다. 영과 영이 서로 통하고 있었다. 조운은 벅찬 감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언니가 왜 침례받고 싶어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조운은 절대로 교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언니를 방문하러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 집을 떠날 때, 나는 영감을 받아 동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그녀가 교회에 들어오리라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몇 번 더 그녀를 방문하여 그때마다 훌륭한 복음 공과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나는 선교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 진실한 젊은 여성이나 홀 가족에 관하여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봉인이 찍힌 편지가 우편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그들이 내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조운과 홀 자매는 그들이 모두 2년 전에 그 도시 외곽의 차가운 호수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후의 놀라운 수많은 편지의 시작이었다. 2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운은 남아프리카에 선교 사업을 하고 있고, 홀 자매의 남편인 배리씨는 아직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나 늘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좋아하며 가족을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나는 조운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 그는 귀환 선교사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그 해 말에 홀 자매가 나에게 그녀의 남편이 침례받았으며 교회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 다음 해에 그들은 가족이 함께 인봉받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솔트레이크 신전으로 갔다.

그때부터 홀 형제는 지부장을 거쳐 스테이크 부단장의 일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운의 남편인 데일 제이 로보는 감독이 되었다. 이 두 자매는 모두 자기 부름을 활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보 사업을 해서 수백 년 전의 조상을 위한 신전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갓 스무 살의 처녀였던 조운 맥아더는 필요하다면 언니의 마음을 바꾸어 볼 결심으로 빅토리아로 왔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갖고 있었다. 진지하게 주님을 부른 그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언니인 제시는 복음을 설명하는 동안 현명하게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영이 설득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귀기울이기를 배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조운 맥아더는 교회에 대한 의견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

#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13-14)

봉사는 태초부터 복음 가르침의 한 부분이었다. 아담의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다. 나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고한 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특권을 받았다.

우리 가족이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은 보스톤에서 20킬로미

터 가량 떨어진 자그마한 웨스턴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었다. 웨스턴 마을은 당시에 주민이 약 11,000명쯤 되는 매우 재미있고 묘한 지역 사회였다. 웨스턴에는 손으로 쌓은 돌벽이 줄지어 있는 꾸부러진 시골 길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 작은 상가 지역은 매일 밤 9시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러나 웨스턴은 재미있는 것이 많은 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특히 많은 학생들이 습관성 약품을 복용하고 알코올성 음료를 팔지 않는 그 마을로 술을 들여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습관성 약품이나 알코올에 관여하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일에 더 바쁜 나날을

보였던 한 웨스턴 학교 학생에 관한 것이다. 이 젊은이는 스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지방에서는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이 청년은 비범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 그는 굉장히 스키를 잘 탔으며 또 그것을 좋아했다. 사실 그는 스키 교사였으며 남는 시간도 다른 사람에게 스키를 가르치는 데 보냈다. 그가 스키 타는 학생과 나란히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광경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으며, 학생이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을 때도 흔히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멋지게 언덕을 내려오면서 차츰 속력을 내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웃고 상쾌한 공기와 반짝이는 햇빛을 만끽한다. 이 두 사람이 밑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재미있게 스키타는 두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구경꾼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눈이 멀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 젊은 웨스턴 학교 학생은 눈먼 사람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그는 무료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자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몇몇 눈먼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서 한 가지 즐거운 일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성취감과 성공을 맛보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의 생활에 새로운 면을 제시해 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스스로 실재하는 온전한 개체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

들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과 격려와 이해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인내심을 보였다. 점차 상호 우애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신뢰했다. 그는 그들의 친구였다. 그들은 그 젊은이에게만 그들의 스키화를 신기고 그것을 스키에 고정시키도록 허용했다.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연후에, 기술은 쉽게 배우게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가 열 세 명의 눈먼 사람들에게 스키를 가르치는데 성공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눈먼 사람에게 스키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교본을 써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 당시 그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영속적인 우정을 쌓았으며 훌륭한 봉사 행위를 통하여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찾게 되는 가장 큰 만족은 자신을 위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웨스턴의 이 젊은이가 눈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서 성취감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누구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오는 훌륭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봉사의 참된 기쁨을 찾으려는 소망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주도 출신 첫 복음 선교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복음이 상륙한 지 1년 9개월 만에 제주 지부에서 첫번째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은 한 금아 자매 선교사가 현재 서울 천호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교회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여 마침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한 자매는 침례를 베풀어 준 한 상의 형제(귀환 선교사, 제주도에 봉사했음)와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면서 제주도에 나온 첫번째 선교사로서 자부심과 아울러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강한 간증을 얻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 지부가 있으며 김 복경 지부장(구 서울 서부 지부장 역임)과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

## 화교 성도 복음 선교사로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소속의 왕 해민 형제는 지난 5월 6일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현재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왕 장로의 고향은 중국 대륙의 산둥성 목평현인데 그곳은 한국 사람들도 약간 살고 있는 곳이다. 왕 장로는 말일에 회복된 복음을 알게 해준 한국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참된 복음을 사랑하는 한국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피터슨 박사 내한 특강



말씀하는 피터슨 박사와 이 호남 경로

교회 교육기부 부교감인 피터슨 박사의 내한 강연이 1983년 5월 12일 오후 7시 서울 동신학 연구원에서 있었다.

이 강연에서 피터슨 박사는 완전예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멀고 험난한 극기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했다. 동신학 연구원의 강당을 메운 학생들의 대부분은 영적인 말씀에 감동되었으며 끝나고 나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의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좋은 모임이 신학 연구원에서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

## 여·순 체육 대회

광주 스테이크 소속의 여수 와드와 순천 지부가 제2회 합동 체육 대회를 가졌다. 5월 20일 석가 탄신일을 맞아 여수 서 국민 학교에서 120여 명이 참가하여 농구, 축구, 배구, 피구, 족구 그리고 육상 등으로 힘껏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여수 와드가 종합 우승을 하였다. 회원간의 우정을 두텁게 하는 이 모임은 여수 와드와 순천 지부가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뜻있는 운동 모임이었으며, 여수 와드는 기념품을 준비하여 참여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 제3회 체육 대회는 순천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